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3장 ‘정치적인 것’의 발견

제13장 1교시

◆ 리학과 고증학

‘정치’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것은 대략 16~7세기 정도에 형성된다. 여기에서 “근대적인”은 중세 형이상학으로부터 독립한 정치임을 함축한다.

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권력의 정당성justification of power 문제**이다. 다르게 말하면 **주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담론체계로 볼 때 ‘근대적이다, 모던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치철학이 형이상학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이 전제되고 그 형이상학에 근거한 정치이념이 제기되었다.

→학문시스템에서는 철학으로부터 사회과학이 독립

▲근대적 정치철학의 탄생

동북아 사회의 경우 16~7세기까지 지배적이었던 이학(理學)에 대한 반동으로서 기학(氣學), 고증학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사상들, 문화활동들이 등장했다.

▲理學

1) 宋學이라고도 함. 약 11세기에 시작됨. 조선에서는 14세기 경 주자학 중심으로 전개됨. 일본에서는 1602년 에도막부가 들어서는데 그 후 반세기 정도 전개됨.

2) 철학적으로는 essentialism이다.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의 본질이 있다는 생각. 本然

3) 리의 체계⇒ **원융(圓融)**의 세계관. 원융의 세계는 하모니harmony의 세계이다.

→하모니는 담론으로 말하면 모든 담론(인식론, 형이상학, 정치철학, 윤리학)이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4) 이러한 理學의 체계에서 氣는 理라고 하는 설계도에 맞추어서 조직이 되는 것이다.

⇒ **氣 중심의 사고방식이 등장함으로 해서 사물들이 조직될 수 있는 방식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진다.**

예) 理學에서는 조류의 理와 양서류의 理는 다른 것이다. 양서류인데 날개가 달려있는 동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기 위주의 사고방식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기는 조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는 것이다.

▲고증학

동북아의 사유에서 **고증학의 발달은 사서로부터 육경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육경(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경)

⇒ 육경은 오늘날의 담론체계로 말하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經世學이다.

사서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지만 주자가 논어와 맹자에 중용과 대학을 덧붙여 만든 것이다. 사서는 성리학적 세계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다.

사서에 기반해서 성리학자들은 세계에 대한 거대한 理, 즉 본연과 원용의 세계관을 구성한다. 이러한 메타피지컬한 연구는 고대의 문헌들에 대한 세세한 주석이나 연구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사변이다.

오규우 소라이(1666~1728)는 에도 초기의 송학에 반기를 들고서 유학을 정치철학으로 재정립하려 노력했다.

▶ 참고자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쿠가와(德川) 시대 일본의 유학자 오규우 소라이(1666~1728)를 안 것은 제법 오래 전의 일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다산 정약용이 이미 {논어} 주석 연구서인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에서 오규우 소라이의 {논어} 해석, 정확히 말하면 소라이의 {논어징}(論語徵)의 내용을 43차례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 일본 지성계의 거봉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주요 저작들이 번역, 출간되면서, 이른바 소라이학의 대강이 우리 나라에 소개되기도 했다. 마루야마의 유명한 {일본 정치사상사연구}는 사실상 오규우 소라이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 사상, 특히 일본 유교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 탓에, 오규우 소라이의 사상 세계에 대한 우리 글로 쓰여진 본격적인 소개나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유교'는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매우 다양한 유교의 학파 및 사상 조류들이 명멸했다. 고대 중국에서는 맹자(孟子)와 순자(荀子)의 가르침들이 전국(戰國) 시대 동안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보다 후대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조류들이 연이어서 각 시대를 풍미했다. 한당(漢唐) 시대에는 주석학(注釋學)이, 송명(宋明) 시대에는 리학(理學) 및 심학(心學)이, 청대(淸代)에는 고증학(考證學)이 득세했던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조선(朝鮮) 왕조의 전시대를 통틀어 주자학(朱子學) 전통이 대단히 강고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전통이 일본의 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도쿠가와(德川) 시대 일본에서는, 주희(朱熹)의 신유학 사상이 그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일본에서는 또한 17세기 후반 및 18세기 전반에 고학(古學)이라 불리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었고, 얼마 뒤에는 고증학 역시 두드러진 경향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유교의 다양한 학파 및 사상 조류들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일치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요순(堯舜) 시대 및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의 성인(聖人)들이 이룩한 문화적 성취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그 시대의 일들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한다. 또한 공자(孔子)가 그 이전 시대의 성인들이 이룩한 문화적 성취가 지닌 철학적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으며, 따라서 공자야말로 옛 성인들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본다. 그리고 공자 및 그 이전 시대의 성인들의 윤리 사상과 정치적 업적을 모든 행위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3강 2교시

◆ 오규우 소라이와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주신구라’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라이는 사적 가치들(부자, 부부, 봉우)과 공적 가치(군신)를 날카롭게 구별한다. 이것은 유학적 사유에서의 중요한 단절을 뜻한다.

⇒ ‘修身齊家’와 ‘治國平天下’ 사이에 불연속을 도입한 것이다.

소라이는 천인지분(天人之分)을 강조하며, 이 점에서 서구에서의 합리주의자들과 경험주의자들의 대립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천의 부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천인지분→순자는 천도와 인위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였다. 천은 공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적극적인 인식과 해명을 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 경험주의자들은 人의 세계를 파악하고 천(신)은 별개로 본다. 경험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리주의자들은 인과 천을 모두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아울러 성리학에 남아 있는 불교적 색채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판한다.

→이것은 ‘수신’과 ‘치국’의 불연속과 맥을 같이 한다. 같은 맥락에서 ‘도(道)’ 역시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해했다. 예악형정(禮樂刑政)이 곧 도인 것이다.

이런 정치철학의 전개를 위해 소라이는 ‘코분지가쿠(古文辭學)’를 제창했다. 이것은 고증학의 성격과 원시 유교로의 회귀라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사서(四書)보다 육경(六經)이 앞에 놓인다.

→ ‘사서오경’에서 ‘육경사서’로의 이런 전환은 다산 정약용에게서도 확인된다. 언어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중국 중심주의의 탈피도 또한 공통적이다.

19세기 초에 사유한 다산의 경우는 이전 사상가들을 훌쩍 뛰어넘어 근대적 정치사상을 전개했다. 그 가장 강도 높은 대목은 선거제의 주창이다. 다산은 고래의 천명사상을 파기하고 하이상(下而上)의 정치를 역설한다.

⇒ 다섯 가구가 하나의 이웃[隣]이 되어 인장(隣長)을 뽑고, 5린이 1리가 되어 이장(里長)을 뽑고, 5리가 1현이 되어 현장(縣長)을 뽑고, 현장들이 제후를, 마지막으로 제후들이 천자를 추대하는 방식이다. 천자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이상의 정치를 제시함으로써 철저히 民을 위한 정치를 구상했다.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17)는 메디치 공에게 헌사한 『군주론』에서 기존의 정치사상과는 다른 사상을 전개함으로써 서구 정치사상의 한 분기점을 마련했다.

마키아벨리는 현실 정치를 형이상학과 철저히 구분해서 생각하려 했으며, 군주에 대한 이전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덕보다는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이 점에서 그가 그린 군주는 그리스 정치철학의 맥락과도 또 중세적 맥락과도 다른 형태의 군주라 할 수 있다. 군주론은 정치이론서가 아니라 당대 정치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한 책이었다.

▶ 참고자료

마키아벨리[1469.5.3~1527.6.21]



르네상스기(期)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정치이론가.

원어명 Niccolò Machiavelli

국적 이탈리아 활동분야 역사, 정치

출생지 이탈리아 피렌체

주요저서 《군주론》(1532) 《로마사론》(1531) 《만드라골라》(1524)

주요저서로 《군주론 Il principe》(1532) 《로마사론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1531) 《전술론(戰術論) Libro dell' arte della guerra》(1521) 《피렌체사 Istorie Florentine》(1532)가 있으며, 또한 이탈리아 연극사상 획기적인 작품이라는 《만드라골라 Mandragola》(1524) 등이 있다.

특히 《군주론》은 그의 대표작으로 마키아벨리즘이란 용어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 책은 군주의 자세를 논하는 형태로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구별된 고유의 영역임을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프랑스 및 에스파냐 등 강대국과 대항하여 강력한 군주 밑에서 이탈리아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 저서는 근대 정치사상의 기원이 되었다.